

# 공연, 전시, 체험 등 제주 유산 다채롭게 즐긴다

### 도 세계유산본부, 올해 유산 활용 다양한 행사 진행 선덕사,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 선정 눈길

제주의 유산을 테마로 한 투어, 공연, 전시, 문화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연중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매년 전국 공모를 통해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전통산사, 고택종가집, 문화재 야행 등 부문별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웅기로운 생활 土水火風', '알뜨르, 다시 쓰는 제주', '기억! 제주해녀문화', '신석기시대 첫 사람, 제주 선사인', '추사, 대평고회' 등 10개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비롯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중 제주 선덕사의 전통산사 활용사업이 문화재청이 집중 육성할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춰 처음 시행되는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에는 전국 10개소가 선정됐는데, 전통산사 부문에서는 제주 선덕사와 경복 칠불암 등 2개소가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선덕사는 2017년부터 온가족이 함께하는 전통산사 문화체험, 도슨트 투어, 인문학 강좌, 청년산사문화캠프 등 전통산사의 문화유산을 모든 세대가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스토리텔링형 영상 콘텐츠를 개발해 지난해 국내 산사 최초로 미디어아트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와 관광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 사진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

은 “문화재청과 함께 추진하는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민간 주도로 사업을 기획하기 때문에 더욱 다채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도내 유산을 활용한 콘텐츠를 적극 발굴, 유산의 새로운 매력을 알리고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 아름다운 제주자연경관 705컷 무료 개방

### 용천동굴·한라산 일몰·마라도 항공영상 등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서 공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국비 사업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으로 제작한 제주 자연경관 고해상도 영상을 국민에게 무료 개방한다.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 구축’ 사업은 고부가가치 공공저작물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공모하고 있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진흥원은

용천동굴 상류군을 포함해 한라산 백록담 일출·일몰, 마라도 항공영상 등 705컷을 국비로 제작했다.

이 영상물은 영리적, 비영리적 상관없이 합법적인 목적이라면 드라마, 영화, 광고, 유튜브 등 다양도로 활용할 수 있다.

영상물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알림마당-영상자료)와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출처와 저작권자를



한라산 일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공

표기하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4K급 고해상도 영상물 총 835컷을 개방하고 있으며, 예능

과 독립 장편 영화 등 다양한 작품에 영상물을 제공함으로써 제주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 4·3 다큐 ‘돌들이 말할 때까지’ 오늘 개봉

17일 개봉하는 제주4·3다큐멘터리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가 개봉 1주차 제주 지역 7개관을 비롯 전국 상영관 92개 극장을 확보하며 거침없는 개봉 레이스에 돌입한다. 김경만 감독의 다큐멘터리 ‘돌들

이 말할 때까지’는 제주 4·3수형인을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로 국내·외 영화제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지난 2022년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약 1년 6개월만에 전국의 관객들과 만나는 의미 있는 시작에 나선다.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제주 지역에선 멀티플렉스 3사 개봉관과 한림작은영화관 등 7개 극장의 개봉을 확정지으며 도민 관객과 만남의 여정을 시작한다.

제주 4·3 생존 수형인들의 생생

한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작품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4·3 이후 76년의 세월을 담은 다섯 명의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록이자 아름다운 침묵의 땅 제주의 풍광을 사려깊게 담아내고 있다. 김 감독이 7년 간의 경청과 묵도 끝에 완성한 신작으로, 촬영과 편집까지 감독이 도맡았다. 오은지기자

##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한판 <400>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맨, “야오랄야, 곤건 들어보라. 우리 묵을서 우네 묵을로 가쟁하민 큰낭 동산이 싶져. 쯤메야, 느 그 동산 우테레 가반다?”  
쯤네 골맨, “아, 그대 큰낭 동산 넘어사민 ㅈ 바리오름이 보이메. 경흔디 그오름 올르쟈 하민 늑적후곡 협흔 계곡을 지나사 쯤메, 그대만 지나사민 오름으로 가지는 디 그 오름만 올르민 촉말 고운 드르가 눈에 들어오주. 눈 앞에 흰하계 펼쳐진 오름의 풍광을 바라보멍 똘은 공길 묵심낭 먹어도 보곡 자연의 아름다움에 취해보민 좋은다.”

오맹이 골맨, “예, 하르바님. 나 후품 고쟁웨도 그대 가보구경후우다.”  
하르바지 골맨, “기여 ‘태산을 넘으면 평지를 본다.’영 후는 속담을 잘 알양바 두라.”

### 제주어 풀이

- \*곤건 : 말 할테니. \*우테로 가반다? : 우로 가보았나?
- \*두린 때마슴 : 어린 때요. \*넘어가났수다 : 넘어갔었어요.
- \*어떠난마슴? : 어째서요. 왜요. \*넘어사민 ㅈ : 넘어가면 곧.
- \*올르다(오르다) : <움직>났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다.
- \*늑적후곡 협흔 : 높고 협한. \*지나사 쯤메 : 지나야 되지.
- \*그대만 지나사민 : 그곳만 지나면. \*가지는 디 : 갈 수 있는데.
- \*드르 : 들판. \*들어오주 : 들어오지. \*흰하계 : 흰하. 흰하계.
- \*바라보멍 : 보면서. \*똘은 공길 묵심낭 먹어도 :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셔도.
- \*좋은다 : 좋다. \*기여 : 그래.
- \*넘으면 : 넘어면. \*영 후는 : 이라고 하는.

고재만 화백

## 세계야생화박물관 방림원 개관 20년 기념행사 다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위치한 세계야생화박물관 방림원이 오는 21일 개관 20년을 맞아 관광객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선보인다.

방림원은 ‘이곳에 오면 행복해집니다’를 주제로 방한속 원장 시비 제막을 비롯 작은음악회, 야생화&화분 플라마켓, 방림원 20년 사진 전시 등을 준비했다. 이날 오후 1시

부터 5시까지 중앙광장 잔디밭에서 열리는 작은음악회는 한국생활음악협회 서귀포지부 회원들이 함께 하며, 사진전은 방림원 조성 당시부터 오늘날까지의 20년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날 관광객들에게는 방림원이 준비한 선물이 증정되며, 도민에게는 입장료 없이 무료 개방된다.

한편 2005년 4월 21일 개관한 방림원은 방 원장이 40년간 한국과 세계 여러나라를 다니며 수집한 3000여 종의 다양한 야생화를 전시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상공회의소  
서귀포시상공회 회장**



**송재철**  
(서귀포시스포츠클럽 이사)

제주상공회의소 서귀포시상공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서귀포시스포츠클럽  
회장 허상우 외 임원 일동**

**축 선**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제주시 아라동을)**



**양영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제주시 아라동을)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라동 주민자치위원 일동**

**축 선**  
CONGRATULATIONS  
**제22대 국회의원  
(서귀포시)**




**위성곤**

제22대 국회의원(서귀포시) 3선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재서귀포시전남도민회  
회장 박복현 외 회원 일동**

**축 선**  
CONGRATULATIONS  
**제22대 국회의원  
(제주시갑)**



**문대림**

제22대 국회의원(제주시갑)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대한한돈협회서귀포최남단지부  
지부장 양정규 외 회원 일동**